

지금 한국에서는 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엄격한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무실과 학교의 강의실, 버스와 전차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것에 관해서 내 의견은 찬성입니다. 저도 담배는 피지 않습시다만 당구장과 오락실, 게임방(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 갔다 오면 옷에서 나쁜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쁩니다. 규칙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사무실과 버스 같은 장소는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피워서는 안된다고 하고 당구장과 PC방에서의 담배는 방증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서 공공의 장소에서 피우자고 이야기 하고,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배는 피우는 자신의 건강에도 나쁘고 주위사람에도 나쁜 영향이 있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들을 보면 담배는 습관성이라고 말합니다. 피우지 않아도 되는데도 습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피우지 않는 습관만 들인다면 건강에도 좋고 주위사람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권리를 말한다면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주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